

저출산·고령사회...목포시 인구 늘리기 '사활'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 등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산·보육 지원 확대·정주여건 개선 등에도 집중

목포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인구감소로 일부 지자체는 소멸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목포도 청년층의 결혼·출산 등 포기, 수도권 이주 등과 인근지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이 겹치면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인구는 22만 379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17.43%로 고령사회(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14~20% 사이)로 진입했다.

지난해 함께 출산율도 0.80%로 전국 0.84%, 전남 1.18% 보다 낮다. 고령화와 출산을 저하로 인한 자연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8만6328명으로 이 중 인근 지역인 무안군으로 42%(3만 6090명)가 이주했으며, 수도권은 21%(1만8079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전출 사유는 가족 및 주거가 48%(4만1938명), 구직이 34%(3만143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를 종합해보면 신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무안군으로의 이주와 구직을 위한 전출이 목포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전남 서부권 경제의 거점으로서 상시 유동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인구 감소를 단순히 인구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해결방안과 대책을 준비해가고 있다.

일단 무안군의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출은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목포시에서 건축 중인 신규 아파트는 10개 단지 3340세대다. 내년까지 6개 단지 1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는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투자가 기대되는 친환경선박과 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비롯해 수산식품산

업, 관광산업 등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청년 일자리 등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 12개 부서에서 인구시책 5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지원금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입촉진 기념품 지원 확대, 전입대학생 생활지원금의 목포권 대학 확대 등 인구관련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활SOC 확충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또 민간과 지혜를 결합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범시민 인구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종합 진단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기 위해 '인구 테스크포스(T/F)팀'을 별도 구성해 분야별 방안을 강구하고, 율하반기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 전담 팀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면서 "목포시에 주소를 갖기 운동 등 인구증가 시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모래언덕... 신안 우이도 ...반딧불이 '세계 밤하늘 보호공원' 추진

신안군이 아름다운 모래언덕으로 유명한 '백서향의 섬' 도초면 우이도를 '세계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 밤하늘 보호공원'은 민간기구인 '국제 다크스카이협회(IDA)'가 전세계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을 청정생태 관광지로 지정한다.

세계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밤하늘의 투명도가 평균 20~22 mag/arcsec² (특정 면적당 밝기 단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남도 가고싶은섬으로 선정된 우이도는 지난 4월 백서향(천리향)의 섬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빛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에만 서식하는 반딧불이가 관찰되는 곳이다.

신안군에서는 우이도를 '세계 밤하늘 보호공원' 지정에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적인 조명의 사용, 가로 등 갯쇠우기, 주택창문의 차광필름, 암막커튼 설치 지원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아름다운 별빛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도록 락발나머물랑길 정비와 밤하늘 조망시설도 설치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우이도가 세계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면 신안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세계적인 청정자연지역 이미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이도는 바람이 만들어 낸 동양 최대의 모래언덕 '풍성사구'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에서 형태가 완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전통 포구시설인 우이도 선창은 조선시대에 증수한 기록(석비)이 남아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3중고' 완도 전복 생산자 돕자" 11t 판매

향우회·자매결연 도시 적극 동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완도 전복 생산자들을 돕기 위해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졌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완도 전복 생산자 돕기' 행사를 진행한 결과 11.3t(3억 2000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에 향우회와 자매결연 도시 공직자들이 적극 동참했다.

완도향우회는 고향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읍면별 전복생산자협회로 전복 5294kg을 주문했다.

또 완도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양천구, 광주 남구, 화성시, 용인시, 천안시 등의 공직자들이 전복 4704kg을 구매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활전복과 손살 전복 739kg, 금일수협 소핑몰을 통해 536kg이 각각 판매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언택트 소비 시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전복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며 "완도군전복생산자협회, 수산경영인단, 도군연합회, 유통 업체 등 유관 단체들과 함께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 청년두드림센터 개관...청년문화 업그레이드 기대

공유공간·일자리 카페 등 갖춰

해남군 청년두드림센터가 지난 23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남청년두드림센터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2억여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착공, 연면적 307.4㎡,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됐다.

센터 1층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청년일자리 카페, 2층은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로 구성돼 있다. 교육실과 회의실은 대관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이 될 청년두드림센터가 개관하면서 지역 청년문화 향상에도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센터는 청년 맞춤형 강좌 운영을 비롯해 일자리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은 물론,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카페도 센터 내로 이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해남군은 지난 5월 청년 외식창업플랫폼인 공유주방과 공유사무실, 해남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청년센터를 개관하면서 해남읍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해남천 일원을 청년 관련 시설이 집적된 청년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청년시설들을 중심으로 청년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이 주축이 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활기를 띠 예정이다.

해남읍 구도심에는 지난 7월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누리문화센터가 개관했으며, 읍 매일시장과 5일 시장 인근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해남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는 등 구도심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영광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 위기 업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6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버티목 자금 플러스 기수급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일반업종 일부가 포함됐다.

2차 신속 지급 대상은 1인 다수사업체, 군에서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올해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이 포함돼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해 대상자가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부족하지만 가뭄의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포도에서 만납시다
전혜진 시집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